**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함**

**7/8 월요일**

***아침의 누림***

**신 16:16-17**  
**16** 여러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17** 각 사람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자신이 바칠 수 있을 만큼 바쳐야 합니다.”

**신 5:5-14**  
**5** 그때에 여러분이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와 여러분 사이에 서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7**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8**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9** 너는 그것들에 절해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나 곧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삼사 대까지 묻겠으나,  
**10**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11**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12**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13** 너는 육 일 동안 수고하며 너의 모든 일을 하되,  
**14**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든 너의 아들이든 딸이든 너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너의 소든 나귀든 너의 그 어떤 가축이든 너의 문 안에 너와 함께 있는 체류자든 간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해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손을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으로 가득 채워서 와야했다. … 백성은 좋은 땅에서 얻은 소산의 십분의 일을 적어도 일 년에 세 차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따로 두었다(신 16:16).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여분의 소산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다. … 우리는 좋은 땅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에게 여분의 소산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땅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히 수고한다면, 우리는 이 풍성한 땅에서 많은 소산을 거둘 것이다. 이 소산은 우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여분이 있을 만큼 충분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권, 집회와 복음 전파에서 섬기는 길, 1장, 124-125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분의 소산은 마지막 십분의 일이 아니라 처음 십분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모든 어린양과 매번 소산의 처음 십분의 일을 주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두어야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린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성령과 동역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표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며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땅은 은혜이다. 햇빛과 공기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시 은혜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을 경작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땅을 경작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은혜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아담이 창조된 후에 사람은 땅을 경작해야 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 … 그 일은 정말로 은혜에 속한 것이다. 햇빛과 공기와 비와 풍성한 땅은 모두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 게을러도 되는 농부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모두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약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가 집회에 올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빈손으로 집회에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주님을 접촉하고 말씀을 읽고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일찍 일어나 주님과 함께 얼마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수고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온종일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이것 또한 우리의 수고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환경을 포함하여 여러 원수들을 처리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동료와 급우와 룸메이트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시험이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고해야 할 항목들이다. 우리가 이 모든 방면에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산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회에 올 때,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 올 것이다. 밤낮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이 있을 것이다. 이 풍성한 소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권, 집회와 복음 전파에서 섬기는 길, 1장, 125-12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권, 집회와 복음 전파에서 섬기는 길, 1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5장*

**7/9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3:8, 10**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1:24, 30**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10:3-4**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전 14:26**  
**26**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방 전역에서, 때로는 전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제품을 가져와 함께 전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산출한 그리스도, 곧 우리가 수고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 우리의 집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집회는 그리스도의 온갖 종류의 소산이 전시되는 전시회이자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판, 15장, 266쪽)

***오늘의 읽을 말씀***

장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모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소산 중의 일부, 즉 과일이나 채소, 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땅의 풍성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서로 함께 누렸고 하나님 또한 그분 자신의 몫을 얻으셨다.

교회생활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산출한 그리스도를 누린다. 매일매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산출해 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함께 모인다. …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좋은 땅’에서 수확한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들은 찌푸리고 차가운 얼굴을 하며 두 손이 비어 있는 채로 오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가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 주님의 백성의 경배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빛나며, 그들이 수고하여 산출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다. 한 형제는 “여기 제가 수고하여 산출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점에서, 또 저런 점에서 참으로 풍성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자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친절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달콤하고 실지적인 분이 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그리스도를 전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경배이며,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며, 원수에게 어떠한 수치인지! 이러한 집회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그러한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 원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보고 웃고 있고,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을까 봐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며,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산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가져옴으로써 원수와 사악한 세력들과의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이것이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며 일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다. 이러한 누림과 나눔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경배이며, 원수에게는 수치이다. … 그러한 집회가 끝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은 부유하고도 풍성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여분을 가지고 왔다가 더 많은 여분을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그 땅에서의 생활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그리스도이다. …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생산한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이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판, 15장, 266-269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판, 15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주님을 먹음, 4장*

**7/****10 수요일**

***아침의 누림***

**신 12:11**  
**11**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엡 3:18**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요 4:23-24**  
**23**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4:15**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그것이 어떤 집회이든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한다. … 이런 식으로 여분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온 우주에 전시된다. 그럴 때 집회는 그리스도로 가득하므로 풍성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는데, 다만 교회의 건축에서뿐 아니라 또한 교회생활 안에서, 즉 교회의 모든 집회 안에서 표현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건축되었다는 증거를 지님으로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이다.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지에 달려 있다.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집회에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람하며 높이게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교회생활의 풍성한 내용으로 표현되실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2권, 교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 4장, 543-544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적어도 일 년에 세 차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 그분께 좋은 땅의 소산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즉 주님께 경배하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두 손에 그리스도의 소산을 가득 담아서 와야 한다. …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하고 빈곤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고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생산해 내야 한다. “그대의 형제 곧 그대의 땅에 그대와 함께 있는 가난한 이와 빈곤한 이에게 그대의 손을 펴야 합니다.”(신 15:11)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필요를 채울 여분도 있어야 한다. “백성이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마땅히 받을 몫은 이러합니다. 백성은 제사장에게 어깨…를 주어야 합니다. 그대는 첫 열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합니다.”(신 18:3-4) 무엇보다도 여분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남겨 놓아야 한다. … 그들이 추수할 때에는 주님을 위하여 첫 열매를 남겨 놓아야 했다.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이었다. 주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놓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좋은 땅에서의 생활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대량으로 산출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수확한 그리스도가 매우 많아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만족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여분의 소산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서로 함께, 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림으로써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얻은 그리스도의 일정한 몫을 가져온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실 것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판, 15장, 262-264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4권, 주님의 회복의 길, 2, 4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4권,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생명과 길, 14장*

**7/11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골 1:12**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고전 14:26**  
**26**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엡 3:21**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 12:6**  
**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고전 10:23-24, 31**  
**23**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람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롬 15:6**  
**6**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 자연히 우리는 단지 지식이 아닌, 교회에 가져올 그리스도에 대한 여분의 체험을 얻게 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먹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소유할 뿐 아니라, 또한 여분의 소산 즉 십일조를 갖게 된다. 이 여분의 소산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 둔,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몫이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서로 함께 나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여분의 체험을 집회에 가져올 때, 집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람하는 전시회가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회복, 2장, 188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축들과 포도주와 우유와 꿀과 신선한 밀 등, 좋은 땅에서 나온 여분의 소산을 함께 가져왔다. …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전람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몫을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집회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전시회가 됨을 예표한다. …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람하려고 모일 때 우리는 유익을 얻고, 공급받은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되고, 문제들은 해결되며, 우리는 건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 곧 몸이 된다. 교회는 … 그리스도에 대한 여분의 참된 체험으로 형성되고 구성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의 실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풍성뿐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누림이 없다면, 여분이 없는 것Iu p이고 여분이 없다면 충만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으로 풍성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며 체험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날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고, 해가 그 위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또 그분께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수확하여 소유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익어서 여분이 되고, 우리는 집회에 가져올 수 있는 풍성한 몫을 자신의 영 안에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집회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드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그들과 함께 나눌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집회와 봉사와 사역과 공급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재와 본질로 충만한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회복하시어, 집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여분의 풍성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만 교회생활의 본질과 실재가 산출될 수 있다.

우리는 아침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그리스도를 접촉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수확물 곧 여분의 소산이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손에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드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교회생활은 실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생활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이러한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우리의 누림에서 나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회복, 2장, 188-19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회복, 2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4권,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해 변화됨, 11장*

**7/12 금요일**

***아침의 누림***

1. **요 4:14, 23**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23**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2. **골 3:16-17**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3. **엡 4:21-25**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진실함’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기 위하여, 신성한 실재가 사람에게 참됨이 되고 성실함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신성한 실재는 실재(요 14:6)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재이시고(1:29, 3:14), 믿는 이들이 참여하고 마신 생수의 원천, 곧 생명 주시는 영(4:7-15)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실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실재는 결국 믿는 이들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 존재 안의 실재로 얻지 못한다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로 하나님을 경배함, 2장, 678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 진실함으로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실행은 공허할 것이다. …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배에 실재가 거의 없거나 전무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경배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경배가 아닐 것이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집회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머리 손질을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다른 어떤 일들을 돌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신 영을 하늘에 속한 비로 보내셔서 우리를 적시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 더 이상 우리는 단지 가르침을 받거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집회에 와서는 안 된다. 집회에 올 때 우리의 의도와 완전한 기대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상호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오, 주님. … 저는 오직 당신을 위해 집회에 옵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당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의 의도는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에 가려고 차에 타자마자 찬양과 찬송을 시작해야 한다. 집회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찬송과 시와 찬양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여분의 소산을 집회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당신께 당신의 아들을 저의 제물로 드리고, 형제자매들과 당신의 아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집회는 변혁될 것이다. 모든 성도가 자신이 체험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올 것이다. …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와 나눌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경배를 회복하실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아버지께 여분의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로지 집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보존하고 손대지 않고 따로 떼어 둔 몫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만족과 성도들의 누림을 위해 아버지께 드리는 비밀스러운 몫일 것이다. 우리는 교회 집회가 이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로 하나님을 경배함, 2장, 677-68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로 하나님을 경배함, 2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함, 5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사람의 영과 교회, 4장*

**7/13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2. **요삼 1**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합니다.
3.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4. **요일 1:1-2**  
   **1**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5. **요삼 2-4**  
   **2**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혼이 잘되는 것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심지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쁩니다.  
   **4**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생활이다. …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제물들을 산출한다.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한다.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제물들로 체험한 바로 그 그리스도로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로 … 번제물로, 소제물로, 혹은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 모든 제물들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이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05-106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사실상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 누림은 결국 매우 주관적이면서 실지적인 어떤 실재를 낳는다. 한편으로 이 실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실재이다.

가령 교회생활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무관심하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면에서 게으르다고 하자. …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의 체험도 없다. 이 형제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어떤 심한 죄도 짓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 집회에 올 때 그들은 빈손이다. 그들은 기도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해 말할 수도 없다. 그들은 집회에 앉아서 다른 이들이 기능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보기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이런 종류의 경배는 그분께서 거절하실 뿐 아니라 유죄판결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한다. …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한 그리스도로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을 누린다. 이러한 누림은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실재라고 부를 수 있는 실재를 낳는다. 이 개인적인 실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흠뻑 적시시는 문제이다. 이 실재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재가 되시는 것이다. … 이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실재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실재 곧 우리의 개인적인 실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재는 우리가 신성한 실재를 누리는 것에서 산출된다. 즉, 이 인간적인 실재는 우리가 날마다 신성한 실재를 누린 결과이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성실해야 하며, 이 성실함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진실함’의 의미라고 말하는 메시지들을 들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곳에 없습니다. …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성실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 이 절에 담겨 있는 신성한 계시에 따른 ‘진실함’이란, 우리가 실재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그 실재는 바로 우리가 실재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린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실재로 누릴 것이다. 이러한 누림은 미덕을 산출할 것이며, 이 미덕은 우리의 인간적인 진실함, 즉 신성한 실재의 산물인 실재가 될 것이다. … 이 미덕은 다름 아닌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들이시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이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06-10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교회 집회를 위해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5장*

1.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2. *주님을 먹음, 4장*
3. **찬송: 864 (英) 그리스도를 가져와  (中:624)**

**1**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풍성 다 바쳐  
하나님 음-식 되도록 다 주를 전람해

**(후렴)**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주의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2** 주를 힘입어 생활해 주를 의지해 싸우네  
그 몸의 경-륜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3** 우리의 모든 것 체험 다 주를 위해 받은 것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전람해보세

**4** 모일 때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가져와  
서로의 풍-성 누리며 주 전람해보세

**5** 부활 주 향기로 삼고 승천한 주를 높일 때  
하나님 만-족하시니 주 전람해보세

**6** 집회의 중심과 실재 모든 봉사와 분위기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걸세

**7** 모든 신언과 기도와 영 안의 모든 교통들  
은사로 하-는 모든 것 전람 위해 있네

**8**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풍성한 그-리스도를 함께 전람하세

**7/14 주일**

***아침의 누림***

1. **요이 1-4**  
   **1** 장로인 나는 선택받은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2**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4** 나는 부인의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2. **요 18:37-38**  
   **37**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란 말이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총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38**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3. **요 1:7-9, 14**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그는 그 빛에 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려고 하였다.  
   **8**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이었다.  
   **9**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7:20-28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37-38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Resumes after Semiannual Video Training)